전통한옥의 근대화 요소와 현대한옥의 특징 비교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Elements of Traditional Hanok and Character of a New One

손승광*

Shon, Seung-Kwang

김미선**

Kim, Mi-Sun

Abstract

Hanok is Korea's traditional housing. From the 1970s,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in urban areas have not lived in Hanok housing but an apartment. Consequently, many people no longer familiar with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raditional Hanok. People who live in the environment of residential apartments eargle like new residential and pursue eco-friendly homes, health homes, espacially among the hanok was reassure potential. There have been many debate how Hanok housing can become more sustainable, yet keep characteristics of its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raditional Hanoks and modern architecture can influence each other, how the popularization of modern homes was formed and this relationship with the new less popular Hanoks. Finally, We will exmine how old Hanok can be renovated into new, modern Hanoks. The subject areas are Seoul, Jeonju, and Chongju in early twentieth century; by discussing with upper-class Hanok to improve the general standard of most traditional Hanok.

Keywords : Modern Hanok, Changing Hanok, Hanok Model, Transformation

주요어 : 현대한옥, 한옥변화, 한옥모델, 변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옥은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한국의 전통주택으로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동질성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요소이며, 최근 들어 생태적 측면에서도 재평가되고 있다.

근대화 초기에 한국의 경제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선진 외국에 비하여 주택분야에서도 초라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한옥은 전근대적인 주거로서 인식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향상되면서 건강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옥 또한 건강주택 문화자원 등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현상에서도 새롭게 이상적인 주택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¹⁾

한옥은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까지 건축되어 왔으나 그

이후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대중적인 주택형으로 자리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옥은 그 가치를 망각하게 되었다. 한옥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옥의 원형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주거로서 편리성이나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전통적인 한옥의 원형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따르는 양면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옥은²⁾ 문화적 원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거주자의 편의성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들어 한옥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지원이 있는데도 여전히 한옥은 '전통한옥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신한옥이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랜 시간동안 전통주택으로 자리해온 한옥이 일제강점기를 통한 일본과 서양문화의 도입, 6.25 동란을 거치면서 국토의 파괴화,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에 부응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옥 또한 시대발전과정에 따라 주거공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Shon, Seung-Kwa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ongshin Univ., 252 Daehodong, Naju City, Chonnam 520-714, Korea, E-mail: sskshon@dsu.ac.kr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0-0025820).

1) 역사적으로 古都인 전주·경주·서울·청주 등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한옥지구 및 한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농촌 마을의 주택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공간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 한옥은 양식주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통한옥과 개량한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광의적 의미로 호칭되며, 전통한옥은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주택양식을, 현대한옥은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택문화를 경험한 이후의 현대적인 기술을 수용한 한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간의 형성, 경제성장에 따라 주거발전과 주거이동, 새로운 주거의 이주 등에 대한 경험이 한옥이라는 주거형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적 문화와 생활에 익숙한 현대생활인에게 한옥이란 전통한옥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한옥은 전통한옥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현대 생활공간을 원하는 거주자 입장에서 한옥을 이해하려 한다. 전통과 현대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현재의 수준에 충실하여 한옥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전통한옥의 특성을 현대적 기준으로는 괴리감이 있어 그 변화요인과 상관관계를 명료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대에 생활공간으로서 한옥은 새로운 기능과 용도, 현대인의 생활양식, 그리고 한옥의 전통적 특성이 균형이 무엇인 지에 대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통한옥이 일제강점기를 통한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영향,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화과정, 아파트문화와 새로운 기술을 경험한 현대인의 주택의 기준과 요구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한옥으로는 만족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 이후 외래문화의 도입시기에는 근대주택에 상대적으로 입식, 수세식 실내화 등의 요구사항이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후에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협소한 생활공간의 확대에 의한 개조와 확장, 한옥의 변형, 그리고 한옥과 주택과의 공간특성은 연속과정으로서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에서 새로운 한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통한옥, 개화기의 한옥과 외래문화요인, 경제발전 이후의 단절된 한옥과 아파트에서의 체험을 가진 거주자의 새로운 욕구를 비교해 봄으로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한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전통주택이 변화하는 것은 외래문화의 영향, 경제와 생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한옥은 일제강점기에 서양건축과 주택에 대한 변화가 출발이 된다. 특히 6.25동란 이후 경제발전과 파급효과로서 경제성장과 주택문화의 변화는 급격한 과정이었으며, 특히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삶, 주택문화,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옥의 격동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은 일제강점기의 도시지역에 입지한 한옥³⁾과 개량주택, 그리고 한옥이 단절된 이후에 나타난 근래의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다.⁴⁾ 개화기의 한옥

은 일본식 주택과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통한옥과 일본식의 주택이 절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급진적이며, 아파트일변도의 주거문화에서 새로이 부흥하는 현대한옥은 전통적이어서 하는가 아니면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러한 한옥의 배경과 특성을 비교함은 현대 한옥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에서 전통한옥은 현대주택과 가장 가까운 조건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축된 한옥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현대한옥과 비교하여 도시주택으로 정착되어 오는 가장 근접한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개화기에 개량하려는 한옥모델은 현대한옥을 추구하는 입장과 배경과 출발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교연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현대인들은 전통한옥에서의 생활경험보다는 일반주택에서 생활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경험과 기준 그리고 요구조건이 새로운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대한옥의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 기술, 문화가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옥의 원형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옥의 전통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거친 후에 한옥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한옥은 중상류계층의 한옥으로 하여 이상적인 한옥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⁵⁾ 왜냐하면 한옥의 이상은 어느 시대이든 소득계층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

3. 연구대상의 시기별 특성

1900년대 초반기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어 일본을 통한 새로운 주택문화와 접하는 시기이고,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의 침체기,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산업부흥기, 70년대부터의 경제소득의 급진적인 상승과 도시화 주택산업의 활성화이후 8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의 변화는 건축전반에 걸쳐 발전과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Figure 1>.

Figure 1. Socio- Economic Growth, 1900s- 2010s

3) Song, I. (1988). A Study on the Plan 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1). Nam, H.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Floor Plan in Jeonju Hanok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 임창복(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서울: 돌베개 참조.
4) 일제강점기의 한옥과 개량주택으로 논의된 주택(임창복, 2011. 전남일보 4인, 2008), 서울 북촌지역의 한옥연구(송인호, 2006, 2009), 성북동과 제기동 지역의 한옥연구(손승광 외 2인, 1990), 전주 교동 지역의 한옥조사보고(남해경, 2010), 나주읍성권 한옥(손승광 외, 1996)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서 한옥은 일본강점기의 일본문화와의 접촉시기에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밀려서 한옥의 소멸기를 겪고, 한편으로는 한옥이 개조되는 현상을 거친다.

근래 30-40년 동안 한옥의 신축이 거의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들어 새로이 건축되는 한옥은 사회-경제적 성장을 반영하는 수준의 생활을 담는 한옥을 추구하는 거주자, 한옥의 문화적인 원형을 기준으로 육성하려는 한옥정책 사이에 '한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 논란이 진행 중이다.

한옥의 정체성은 변화하는 거주자의 욕구와 변화하지 않는 문화적 원형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옥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기준으로는 일제강점기의 한옥, 1960년-2000년대 한옥의 공간개조, 1970년대 이후의 일반주택, 1980년대부터 2000년대의 아파트의 공간으로 투영되는 주택공간의 경험과 공간특성의 유사성을 고찰하였다.

한옥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은 어느 특정시기에 형성된 한옥의 공간특성을 통계적으로 고찰하기 보다는 변화과정의 요인과 변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옥의 정체성에 관한 시각을 다양화하고 문화적 전통성과 현대적 생활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I. 도시한옥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주택

1. 한옥의 장점과 이상

‘전통한옥’은 서양식 주택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주택으로 ‘인간적인’ 목조가구조의 의장특성과 공간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오랜 시간동안에 형성되어온 공간, 이미지, 장소로서 정체성을 가진다(Yoon, 2001; Lee, 2011)⁶⁾. 전통한옥은 ‘목조가구조로 건축되는 의장적 특성,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척도, 자연과의 조화’(Yoon, 2001), 조형의장 특성으로서 지붕처마곡선미, 공간구성, 장식과 색채를 가지고 있다.⁷⁾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주거로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전통한옥은 삶과 기능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연출되는 전통한옥의 멋과 정신이 있다’, ‘한옥은 문과 창이 가장 화려로운 장식이기도 하고, 한지로 도배한 실내, 목재와 장판에 콩기름 바르기 등이 정갈하고 멋스러운 집이다’(Jung, 2003).⁸⁾

그러나 전통한옥이 가지는 정체성과 의장 특징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대주택으로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서 현대(新)한옥은 어떠한 공간과 디자인을 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⁹⁾

문화재이거나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더라도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축에는 전통한옥, 원형과 원형에 가까운 건축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살아가야하는 주택으로서 한옥은 시간에 간혀진 주택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변화하는 거주자의 생활과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방식과 수준, 사고방식,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달라져서 전통한옥을 똑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일제강점기 한옥의 개량화 논의

20세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서양주택, 일본식주택, 근대생활에 대한 개념이 전통주택과 주거환경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전통한옥 또한 새로운 유형의 출현과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주거환경을 개량하고자 하는 계몽운동은 생활개선과 주택개량운동으로 이어진다. 1908년 황성신문에 ‘가옥개량의 효시’ ‘머리로부터 의식주개량’, ‘문화생활과 주택’ ‘긴급한 위생문제’, ‘생활의 과학화에 대하여’, ‘주택지선택개론’ ‘우리주택에 대하여’ ‘잘 살려면 집부터고침시다’(1929) 유향성의 소위문화주택(1930) 등의 글은 당시 조선사회를 계몽하는 주택위생문제를 다룬다.¹⁰⁾ 특히, 동아일보에 연재된 부엌에 대한 기고문은 ‘위생적인 부엌’, ‘부엌을 보이지않는 위치로’ ‘부엌을 규모있게, ‘작업동선과 작업자세의 입식화’ 등 부엌에 대한 개량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¹¹⁾

3. 일제강점기 도시한옥

일제강점기에 도시한옥은 밀집지역에서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일본인중심의 주거지와는 차별화된 도시주택지를 형성하게 된다. 일제강점기동안 농촌주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주택으로, 도시의 살림집 골목길과 고살이 있는 주거지가 형성된다. 도시지역에 형성되는 새로운 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가 격자형으로 가로망과 필지가 구획되어 여기에 건축되는 한옥은 자연스럽

5) 서민주택은 연구대상으로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한옥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데에 현재는 당시의 경제력과 너무 현격하게 발전하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상적인 주택을 당시에도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6) Kim, B. (2011. Spring). Hanok - New Horizon of Korean House Form.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M, 3, 24-32.

7) 윤장섭(2001). 한국건축문화. 서울: 동명사.

8) 정민자(2003). ‘아름지기의 한옥짓는 이야기’. 서울: 중앙엠비출판.

9) 전통한옥의 특성과 장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한옥스러움과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옥을 사용하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성이나 기능성을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옥을 현대적으로 추구하는 관점이 다르다.

10) 임창복(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고원훈(1923. 동아일보), 김유방(1923. 개벽32호), 홍석후(1923. 동아일보), 박길룡(1929. 1930. 1935. 동아일보), 홍윤기(1937. 동아일보), 박동진(1931. 동아일보).

11) 동아일보 연재 김윤기(1930.9), 홍석후(1923.1), 이상호(1927.4), 박동진(1930.9) 참조.

게 조성된 대지에 건축되는 한옥에 비교되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도시한옥으로는 서울, 전주¹²⁾, 상주 청주 등 지방 거점 도시들에 남아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건축된 한옥은 서울 경기지방의 전래 민가의 배치형식에 상류주택의 구조와 의장형식을 접목하여 좁은 대지위에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도시한옥은 택지개발로 조성된 협소한 대지에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야 했으며, ‘개량한옥’들로 지칭되기도 한다(Kim, 2011).¹³⁾

협소한 대지위에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법으로 <Table 1>의 제1주택은 골목길을 통하여 진입되며, 도로에 면하는 한옥은 행랑채로 안마당을 차폐하고 주거기능으로는 사랑채 기능으로 활용되며, 상업이 필요한 경우는 상가로도 활용한다. <Table 1>의 제2주택은 협소한 부지에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도시한옥의 평면배치로 기억자 혹은 다급자 몸체에 일자형 한옥, 혹은 담장이 조합된 건물들이 안마당을 형성하여 외부공간으로부터 보다 강화된 사적공간을 형성하였다.

1) 서울, 북촌의 한옥평면

서울지역 도시한옥의 진입은 대부분 대문간-안마당-그리고 대청으로 올라서 안방과 주요 실로 진입하고, 익랑채나 문간채는 각각 마당에서 진입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부지가 협소해지고 기억자 혹은 다급자로 배치되는 주택에서는 뒷마루로 연결되는 방식보다는 쪽마루를 통하여 각 실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대청마루 또한 많은 온돌방으로 이용되며, 대청마루를 설치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면적만을 둔다는 점이 부농형 혹은 상류주택의 한옥과는 다르다. 협소한 부지내에서 전통적인 생활공간의 유형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간크기를 축소하여 건축하기도 하였다.¹⁴⁾

고밀지역에서 한옥은 벽체하부에는 돌 혹은 벽돌로 쌓고 필요한 개구부는 개구면적을 작고 창문의 위치는 높게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며 이로써 나타난 외관과 공간구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한옥은 밀도가 높아질수록 외부에 대하여 견고한 벽체, 고창, 폐쇄적인 개구면적비 등이 현저하며 반대로 내부안마당으로는 안마당과 대청마루나 뒷마루, 그리고 마당으로 면하는 각 실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점이 대조적이다.

서울 북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된 도시형 한옥은 지방 도시에 건축된 한옥에 비하여 보다 고밀도로 주택지를 형성하며, 주택형 또한 기억자, 다급자, 트인 미음자형 등으

Table 1. Urban Hanok 1930s, Bukchon, Seoul

	Housing type, N.village of Seoul					
	1.	2.	3.	4.	5.	6.
Opened □						
	1. Gahoe-dong	2. Gahoe-dong	3. Kye-dong	4. Gahoe-dong	5. Samchung-dong	6. Samchung-dong

로 대문에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로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폐쇄도가 크다<Table 1>.¹⁵⁾

주택이 외부공간에 대하여 중정을 중심으로 폐쇄적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평면구성이 선형으로 구성되면서 한옥으로 둘러싸는 중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한옥의 건축구조는 홑집을 기본이다.

홑집으로 구성되거나 주택의 너비가 작은 평면에서는 텃간이 동선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텃간까지도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고 쪽마루를 설치하여 중정에서 직접 진입하는 구성이 흔하다. 홑집으로 구성된 한옥의 조형은 주택의 지붕높이가 낮아서 한옥이 친근하게 인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2) 지방도시, 전주의 한옥평면

이처럼 외부공간을 프라이버시가 강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로 한옥구조체는 외부에 대하여 방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중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옥이 선형으로 구축되는 배치방법으로 전통적인 한옥의 홑집 구조방식을 따르게 된다<Table 2>.¹⁶⁾ 부지면적이 넓은 주택에서는 외부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확보가 용이하여 중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주택배치의 선택이 다양하고, 이러한 입지에서는 주택의 평면구성이 겹집형 혹은 중복도형 등 주택평면구성이 가능하여 겹집형 한옥의 발전, 근대식 혹은 일본식 생활양식을 수용한 복도형 평면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도시에 건축된 한옥, 예를 들면 전주지역의 한옥은 경우, 기억자, 일자형이 대부분으로 전주지역은 서울지역에 비해 토지이용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부공간의 프라이버시 요구도 또한 서울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12) Nam, H.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Floor Plan in Jeonju Hanok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 139-148. 참조 “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원에 800여 세대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을 형성하였다.”

13) Kim, B. (2011. Spring). Hanok-New Horizon of Korean House Form.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M, 3, p 32.

14) 임창복(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525참조. 김정곤(1983). 서울시내개량한옥에 관한 연구. p 64쪽 재인용

15) 북촌지역의 한옥실측보고서에 나타난 한옥 중에서 다급자 미음자 형으로 배치된 도시한옥을 간략화한 개념도이다.

16) 전주지역의 한옥실측조사보고서에 조사된 한옥중에서 특징있는 주택을 간략화한 개념도이다.

Table 2. Urban Hanok Provincial City 1940s', Jeonju

Housing type, Kyo-dong, Jeonju	
1.	2.
3.	4.
5.	6.
1. Emty	2. Dongrakwon
3. Cha jongtae	4. Lee, Jungja
5. Yang Jungja	6. Won Buddhist Training Center

농촌지역의 한옥, 그리고 전주와 같은 지방도시의 일자형과 기억자형 평면의 도시한옥에서는 뒷마루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진입과 평면이동이 가능하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한옥평면구성은 일자형과 기억자형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Table 2>는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한옥 특성으로 전주지역의 한옥실태조사를 통한 한옥을 살펴본 바, 일자형과 기억자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간살잡이로 개념화한 모델이다.

III. 일제강점기 한옥의 이상적 모델

일제 강점기의 한옥은 일본인들을 통한 서양과 일본의 새로운 주택문화가 소개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대다수의 주택, 특히 한옥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부유층에서는 일본식의 주택을 건축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근대식이지만 한옥을 기본으로 하고 일본인들의 생활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1. 상류층 한옥의 새로운 타입

‘20세기 초 중상류계층들이 축조하는 한옥은 농어촌지역의 부농주거와 근대도시지역의 사대부가의 한옥으로 대별할 수 있다.’¹⁸⁾ 전통방식의 한옥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계층은 한옥에 외래문화의 도입을 시도하게 된다. 혹은 기독교 선교사, 해외공관,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강제 점거하면서 정착하게 된 일본인들의 주택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주택의 이상향이 다양해 졌다. 외래문화에 기반을 둔 시각에서는 ‘전통한옥을 재래주택이라 하고, 한옥을 서양식주택과 비교하여 실용성, 위생기준으로 전통한옥을 재래주택으로 보고 새로운 주택모형으로 주택개량을 시도하였다.’

농어촌에 기반을 둔 부농주택은 당연히 전통을 고수하

고 변화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전통한옥의 지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¹⁹⁾ 도시지역에서 협소한 대지를 가진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를 인접한 배치이거나 동일건축물에 안채와 사랑채를 단일 건물로 구성하여 협소한 대지의 활용과 주택에서의 동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아진다.

1) 이태준가옥(성북동)

‘성북동에 소재하는 이태준가옥은 1900년대 초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채와 사랑채를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였다.’²⁰⁾ 누마루가 건물의 전면, 안방의 앞에 위치하며 평면구성에서 기둥 배열방식과 실구성은 전통적인 간살잡이를 벗어나서 비교적 자유로운 구성이다. 부엌과 마루방 변소로 이어지는 부분의 간살잡이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며 몸체의 구조로부터 자유롭다<Figure 2>.

Figure 2. Lee, Taejun's House (1900s), Seoul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이 영역의 뒤편에는 골방과 뒤편 뒷마루, 부엌과 변소가 있으며 이 부분은 대청에 달린 창문들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의 구성은 전통적인 한옥의 안채구성과 같다. 그러나 대청 뒤로 뒷마루, 뒤편의 골방, 부엌, 그리고 변소로 이어지는 생활영역은 전통한옥에 겹집공간으로 복합된 구성으로 새로운 평면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엌에서 찬마루 식사용마루, 다락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생활공간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방에 부속되는 벽장 또한 1칸을 띄칸 혹은 1/2칸 단위의 구법보다는 필요한 공간 크기만큼으로 크기를 정하는 실용적이고 섬세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주택 진입은 뒷마루를 통하여 진입하고 있다. 현관 도입보다는 부엌과 화장실의 입식, 실내화가 먼저 시도되었

17) Nam, H.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Floor Plan in Jeonju Hanok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 139-148. 참조

18) 홍승재 (2005). 전북지역 근대한옥의 정통성과 근대성. 건축역사연구, 14(4), 242-253

19) 홍승재 (2005). 전계서 참조, 부농주택으로 홍기응가옥(나주, 1892), 박봉기가옥(무안, 1927), 이금재가옥(보성, 1900추정), 김안근가옥(익산, 1922), 김상만가옥(고창, 1895-1903), 장현식가옥(1930), 정상윤가옥(장수, 1938)

20)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2008). 한국주거의 사회사. 서울: 돌베개, 55-56.

다. 마루 중에는 대청마루와 누마루만을 유리창문을 설치하여 실내공간의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뒷마루공간은 개방공간으로 두어서 전통적인 한옥의 이미지나 조형성은 지켜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 설치하는 문은 분합문이 아니라 미서기형 유리문을 설치하여 유리의 보급 확산에 따른 일본식 외관이 나타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2) 학인당(전주)

전주교동에 건축된 학인당(1908)은 조선말기의 상류주택으로 건축당시 99칸으로 본채, 별당채, 사랑채, 안채, 대문채, 뒷채, 행랑채 이외에도 사랑채, 별당, 정자 후원 등 2,000여평에 건립된 대저택이었다. 몸채부분의 주요 구조는 ㄱ자형의 7량 집이다. ㄱ자형 평면은 후면의 뒷마루공간을 활용하여 동선으로 연결되며, 후면으로 방과 부속실이 구성되었다(Figure 3).

몸채의 전면과 후면에는 퇴칸이 있는데 몸채의 뒤편으로 이어지는 부엌 앞으로는 머릿방이 3미터×4.5미터, 부엌과 광이 4.5미터×6미터이며, 안방 뒤로 복도와 유사한 마룻방을 거쳐 뒷방이 2칸이 있다. 그 뒷방 뒤로 다시 중복도가 있으며 맞은편으로 서재, 세면실, 목욕실이 있고, 뒷마루로 연결되는 뒤편에 세면실과 화장실이 부속된다.

대청마루와 뒷마루 구조는 분명하면서도 마루가 실과 실사이에 있어서 중복도와 같다. 서재, 세면실, 욕실, 화장실이 몸체에 구성되어 전통한옥과는 다르다.

주택 전후 면으로 뒷마루가 설치되고 뒷마루공간이 중복도로 활용되어 3겹으로 중복도가 반복되면서 주택의 전후 면으로 공간깊이(폭)가 두꺼워진다. 결과적으로 주택위에 얹어지는 팔작지붕은 높이가 커지고 지붕은 거대한 지붕 볼륨이 불가피해진다.

Figure 3. One of Ideal Hanok, Hak-in-dang, Jeonju

대들보와 서까래로 구성되는 지붕구조는 대청마루 연등 천장으로 노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방위에 다락을 설치하였다. 방과 각 실의 상부는 일반 한옥과는 달리 과도하게 천장안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천장안의 공간은 외

부로 창문을 달아서 2층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옥의 평면적인 공간깊이가 커질수록 지붕안의 볼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한옥의 다층화의 잠재 욕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겠다.

2. 한옥과 일본주택의 절충모델

일본 강점기에 일본주택은 근대적인 주택으로서 한옥의 주택과 비교되는 주택유형이며, 한옥과 절충되어 새로운 주택으로 나타난다. 일본강점기에 일본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설계안은 일본주택과 한국주택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설계안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오영섭, 박길룡, 장기인으로 이들이 설계한 주택모델은 일본식이면서도 한옥공간의 특성이 동시에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설계개념은 한옥을 재래주택으로 보고 화장실, 욕실, 부엌의 실내화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장기인의 주택안(1940)(Figure 4)은 주요구조부가 조적조이나 내부간막이, 바닥과 지붕 등은 모두 목조구조의 한옥타입이다. 주택평면은 안채와 사랑채가 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채와 사랑채에 각각 현관이 도입되었고 홀, 중복도 욕실, 화장실이 수용되었다. 안채영역에는 노인실과 아동실이 있고, 부엌과 식당에는 별도의 식당방이 있어서 가정부 생활공간까지 고려되었다.

Figure 4. Modern Design in Hanok Style by Gi-in Jang, 1940s'

주택 평면은 중복도의 전후로 건넌방과 방이 마주하게 되었고, 사랑채영역에서 홀에서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 사랑방, 온실, 객실, 응접실이 배치되었다.

기능적으로는 중복도, 화장실, 입식부엌, 욕실 현관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하여 안채와 사랑채공간이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되어 수용되고 있어서 한옥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남았다고 보인다.

안채 공간으로 보이는 좌측에서는 한옥의 구법을 가진

평면형에 현관, 화장실과 어린이실(E2)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부가되고 있다. 중복도로 구성된 부분에 외연으로 실이 부가되어 구성되는데, 이러한 기법은 전통주택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구성기법이지만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구성되는 이러한 구성은 새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원래의 평면은 한옥의 평면 구성과 공간구조를 하고 있다. 안채 부분의 후면과 사랑채 공간 후면부는 식당, 방, 화장실, 욕실, 계단, 식당 그리고 현관이 부가되어 중복도형의 일본 주택타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가리고 보면 전면과 후면에 텃마루가 있는 한옥평면구성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장기인의 한옥형 평면구성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한옥에서 텃마루로 사용되는 공간을 공간과 공간의 연결동선으로 하여 다양한 실과의 연결구성이 가능한 부분이다.

텃마루 외연에 실을 부가하는 실구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중복도로 보거나에 따라 일본식 주택과의 상관성도 생각할 수 있다.

3. 1900년대 상류계층 한옥의 현대적 가능성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에 상류계층들이 건축한 한옥평면은 전통적인 한옥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한옥이 서양문화와 만남으로서 한옥의 진화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그러한 변화욕구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당시의 변화는 한옥에서의 전통이 강한 시대에 변화이어서 한옥의 구조방법, 평면구성 등이 보다 익숙한 상태에서 한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되었던 생활공간이 하나의 주택으로 병합되어지며, 살림공간이 아래채와 행랑으로 기능이 분화되었던 측면이 살림집으로서 한옥으로 통합되어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둘째,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옥의 텃마루공간으로 활용되었던 통로공간에 필요한 실을 부가함으로써 중복도형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한옥설계경기), 겹집형(이태준가), T형 H형 등의 주택평면으로 평면구성이 진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주택에서 주류를 형성하기 보다는 상류계층의 주택변화 현상으로 한옥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²¹⁾

셋째, 상류한옥은 안채와 사랑채의 복합구성으로 공간구성이 합리화되며, 현관, 욕실, 화장실 등이 평면에 채택되며, 경제소득이 향상되면서 늘어나는 생활규모, 다양한 공간으로 분화되어 진다. 이로써 한옥은 주택의 깊이(보 길이와 관련됨)가 깊어지고 지붕의 크기와 높이도 비례하여 진다.

넷째, 중복도가 도입되면서 실의 연결 관계가 유연해졌다. 학인당의 경우에 중복도를 채택한 경우에 7량으로 지

붕안의 공간이 커지면서 한옥의 지붕안 공간에 대한 고가의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학인당 참조).

다섯째, 평면의 깊이가 커지면 지붕안으로 들어가는 박공안의 볼륨이 커지는 데, 이 부분은 전통한옥에서는 루프탑의 다락방으로, 학인당의 경우는 부엌의 공간의 레벨과 방위의 레벨로 접근되는 공간구성으로 부속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2층 주택으로의 전이과정으로 한옥의 조형과 2층 주택으로 구성했을 때의 조형성과 공간구성의 고민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여섯째, 근대화시기에는 상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에 건축물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옥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거, 상업 등의 건축물이 2층 건축으로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건축되는 주택 중에는 2층 타입으로 개발된 한옥은 벽돌조와 근대건축 기술로 건축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사라진 기술로 볼 수 있으며, 토지이용밀도, 2층 생활을 지향하는 주택 등에서의 한옥으로의 건축은 현대적 기능을 담는다는 것을 전제로 2층 한옥으로의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2000년대 한옥의 부활

1. 1960년대후 한옥의 개조와 변화의 가능성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30-40년대에 토지구획으로 택지들이 공급되었다. 여기에 건축한 한옥은 건축 당시에 중·상류 계층의 주택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한옥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효과의 확산으로 보다 넓고, 자동차 진입이 용이하고, 입식생활이 보다 진화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한옥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과 생활규모의 확대에 따른 한옥개조를 통하여 계속 정착 혹은 이주가 반복되어 왔는데, 한옥 개조와 변형에 의하여 남은 한옥은 그 자체로서 한옥의 특성을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한옥의 변형으로부터 형성된 한옥은 단위공간의 확장, 용도변경, 생활면적의 규모 확장으로 건축 당시의 한옥이 아니라 개조된 한옥으로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첫째, 한옥의 면적확대는 한옥의 전면과 후면,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이 확장면적에 대한 구조는 원래의 한옥과 지붕, 벽체 등 조형 요소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한옥 형태 요소의 분절효과를 암시해 준다. 이는 한옥으로 점점 지붕의 중압감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안게 되는데, 지붕의 분절효과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옥의 부분적인 증축은 한옥의 외피, 볼륨 변화를 보여준다. 다양한 공간, 부분 요소의 등장으로 정형화된 한옥의 조형 요소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옥의 공간구조는 일반주택과 유사하고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공간체험은 한옥을 개조하는 공간의 기준

21) 상류주택의 타입의 변화와 진화는 상류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수가 1% 이내 이므로 전체 주택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유형의 출현과 그들의 가능성 평가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한옥의 특성과 아파트 공간경험이 풍부한 현대인들의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공통분모를 추출하는 데에 유용한 실험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한옥의 사회적 배경

1970년대 이후에 한옥건축은 거의 단절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상적인 주택은 일반주택과 아파트로 변하여 갔다. 농촌을 벗어나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옥을 체험하기는 어려웠으며, 한옥의 건축도 단절되었다. 아파트밖에 선택할 수 없는 주거환경에서 황토아파트 한옥 아파트는 아파트문화에서도 한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옥에 대한 평가는 친환경주택으로서, 문화적 향수를 가지는 주택으로서 관광자원화 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한옥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산되었으며, 특히 경제소득이 향상되어 다양한 주택의 하나로서 한옥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역사도시 경주에서 한옥은 문화 환경으로, 2000년 이후의 전주와 전라남도의 한옥육성 정책은 도시민들이 농촌체험과 체류를 통한 관광산업자원으로 지원하여 한옥건축이 활성화된다.

한옥을 정주환경으로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정책을 시행한 지자체는 전라남도이며 이미 1,000여 호가 건축되었다. 한옥지원대상 모델은 건축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한옥의 설계도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건축되는 한옥은 일반주택과 아파트에서의 생활경험들을 담을 수 있는 한옥을 요구하게 되어 2000년대에 다시 태어난 한옥은 전통한옥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3. 한옥모델과 건축사례(전라남도 사례)

전라남도에 표준한옥은 전통적인 한옥의 공간구조를 가지며 목조가구조의 건축모델로 3개 유형에 18개가 제안되어²²⁾ 이들이 거실, 입식부엌, 화장실을 가진 입식생활공간을 요구하게 된다. 2009년에는 거주자들의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체험소득을 위하여 민박이 가능한 한옥모델개발로서 12개 모델이 설계 공모되어 새로운 한옥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표준한옥은 전통한옥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건축된 표준한옥의 건축실태를 보면, 전통타입이지만 부족한 실내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툇마루가 실내공간으로 편입되고, 대부분의 주택들에서 현관을 설치한다. 한옥의 중앙에 큰 거실은 아파트 생활형이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루 바닥은 온돌로 하고, 창호는 기밀성을 위하여 일반창호를 사용한다. 입식가구 때문에 싱크대 창문의 높이는 높아지고, 거실창문도 소파높이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한옥에서 한옥의 건축적인 성능은 많은 발전이 있으나 건축공간의 특성과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한옥이지만 한옥과 많이 다른 한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통한옥은 공간구성 특성과 외부 이미지가 문화적 원형을 가지는 것; 마루와 대청을 통한 진입, 일자형, 기억자형, 디귤자형 등의 평면구성, 각 실로의 연결관계 특성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대한옥은 주택에서의 생활경험이 한옥에 투영된 공간구성, 건축수법의 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전통한옥에서 느낀 불편함은 일반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에서의 편리함을 체험한 현대인들이 한옥에서도 요구하게 되었다.

외양은 한옥이면서도 평면구성은 전통한옥과 아파트 평면과 흡사한 타입이 공존한다. 최근 5년 안에 설계되어 전라남도지역에 건축된 한옥 17개 동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²³⁾, 툇마루가 설치된 주택이 10개 툇마루까지 실내공간으로 활용하는 한옥은 7개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툇마루가 사라지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 전통한옥을 개조하는 거주자들의 툇마루 혹은 대청공간의 실내화하여 사용하는 현상과 같고, 규모가 커진 신축 한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옥의 새로운 모형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옥의 외관은 툇마루가 설치된 주택과 툇마루를 실내화하여 거실로 활용하는 한옥의 외관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에 설치된 창호 또한 입식생활을 반영하여 하인방이 높게 설치되고 전통한옥에 비하여 폐쇄적인 파사드를 인식하게 된다. 주택의 벽면과 볼륨은 한옥의 지붕구조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 결과적으로 팔작지붕, 기억자 디귤자 평면형이 여전히 기본형이며, 부족한 실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되는 부속 공간 혹은 증축공간은 한옥의 기본타입과는 달리 부가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한옥의 후면에서는 초기에 고려되지 못한 다용도 실이나 부속실을 후면으로 증축하게 되는데, 이때 몸체 구조수법보다는 경량구조,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한다. 개화기의 한옥에서도 상류주택에서는 건축초기에 수용되었던 다양한 부속공간들이 현대에 오히려 부가적인 공간으로 건축되어지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4. 개화기 한옥과 현대한옥의 공간특성

전통한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왔으며, 한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한옥을 건축하게 된다. 최근 다시 부활한 현대한옥은 발전한 것인가 퇴보한 것인가? 개화기의 개량한옥은 구조수법과 생활양식이 전통적인

22) 전라남도(2007). 전라남도한옥표준도면 참고. 표준설계도면은 6평부터 55평형까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대문, 와가, 초가 등을 조합도와 같이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23) 손승광 · 김미선(2012).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참조.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군 낙안 한옥마을에 건축된 한옥20한옥 20여호 중에서 2011년 6월에 실측된 한옥을 집의 규모와 진입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한 사례이다.

Table 3. Approach and Plan of — Shape

* () of 17 area

Bay	Approach	Plan	Photo
Front 4 bay (8)	Maru (5)
	Entrance (3)
Front 5 bay (9)	Maru (4)
	Entrance + Maru (1)
	Entrance + JockMaru (1)
	Entrance (3)

생활과 건축이던 시대였다. 그리고 일본을 통하여 근대주택 혹은 개량주택의 개념을 통하여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현관 도입이 이루어지던 방식으로 발전되어진다. 반면에 현대한옥은 한옥에 대한 건축과 생활경험이 단절된 상태에서 아파트의 공간구성에 익숙한 세대들이 추구하는 한옥은 배경과 특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1) 평면구성과 간살잡이

최근에 건축된 한옥은 1980년대 이후에 한옥건축이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출현하여, 거주자의 생활양식 또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서의 생활경험이 한옥에 투영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거주자의 생활양식은 한옥에서의 이부자리는 침대로, 밥상에서 식탁으로, 방석에서 소파를 사용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한옥을 건축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한옥의 협소함을 주문하게 되어 한옥의 칸잡이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건축된 전통한옥에서는 인접한 실,

처마 밑으로 주택이 확장되는 현상은 경제력이 향상될수록 더욱 분명해 졌다. 2만 달러시대의 경제력과 생활양식은 농어촌지역에 건축되는 한옥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1950년대 이후 경험한 주택과 아파트의 영향으로 진입방식은 현관을 선호하고, 내부에 화장실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입식부엌과 식당이 실내에 당연한 기능으로 개화기의 근대화 운동과 일치한다.

개화기 한옥은 전통적인 간살잡이 크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대에 건축된 한옥의 방은 간살잡이를 3.0~3.3미터 크기로 정하고, 주택의 면적도 넓어지고 겹집으로 주택의 깊이도 깊어진다. 현대한옥은 칸잡이는 커지며 대신에 거실 등의 실내구성이 간소화되어지는 특성이 있다. 개화기의 근대주택의 경우, 뒷간에 채택된 1/2칸의 크기의 기둥간격의 칸이 실과 실의 연결, 동선으로 이용되는 타일이 자주 보이는데, 반면에 최근에 건축되는 한옥은 그러한 간살잡이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평면과 흡사한 평면구성으로 나타난다.

2) 한옥의 간살잡이와 원형 이미지

이러한 현상은 한옥이라고 하더라도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옥에 대한 공간의 근원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개화기의 한옥은 한옥의 구법에 익숙한 기술자, 한옥에서의 생활규모 변화가 별 차이가 없던 때라서 한옥의 원형을 많이 간직한 채 일본식의 현관,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구성을 한옥에 담았다고 본다. 현대 한옥은 이미 한옥에 대한 전통적인 공간에서의 생활은 단절되고, 대신에 아파트경험과 생활양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옥을 원한다. 이러한 아파트 생활경험은 아파트형 공간을 한옥의 구법에 맞추려 하게 되어 한옥의 공간특성과 아파트의 공간구성의 사이를 고민하게 된다.

현대한옥에서는 칸잡이가 커지면서 기둥의 굵기는 굵고, 기둥 높이는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주택과 지붕 볼륨은 커져서 한옥에 대한 전체적인 외형은 전통한옥과 달라지게 되었다. 한옥에서 대청이 중심인 것은 거실로 대체되어진다. 그 실내구성이 섬세하게 크기가 정해지기보다는 기둥간잡이의 배수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현저하다. 1/2칸 혹은 기둥의 칸잡이가 작은 한옥에 비하여 거실의 크기는 주택의 전체면적에 비하여 과도하여 각 실의 면적 배분이 섬세하지 못하며, 특히 거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넓어지거나 섬세한 실의 크기로 조정하지 못하여 방이나 다른 공간에는 협소한 공간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주택이 많다.

3) 현대한옥의 한계

개화기 한옥과 현대에 건축되는 한옥을 비교해 보면, 물리적 기술과 건축의 생산성은 발전하였으나 각 실의 크기 조정, 공간구성의 연속성, 한옥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옥의 목조가구조의 구법변화에 따른 비례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평면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과 아파트의 평면구성이 현대한옥에 우선적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건축시기로 보면 현대의 한옥이 전통한옥이나 개화기의 한옥에 비하여 기술이나 양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 요소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생활가구나 생활양식은 전통한옥의 단위실이나 평면규모에 담기 어려운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미 단위실의 크기가 커지고 목조부재의 크기와 비례, 창문과 외벽 지붕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한옥의 공간과 조형비례가 달라졌다. 한옥과 같은 재료와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한옥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유형 무형의 요소가 너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현상은 한옥의 논쟁에 빠져들게 한다.

현대에 우리는 한옥의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에 대한 출발을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써 한옥의 원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옥이라면 전통한옥이, 현대생활을 위한 생태적인 측면의 한옥이라면 현대생활을 담는 것으로부터 한옥건축의 공간과 양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VI. 결 론

현대에 건축중인 한옥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성능에서는 발전이 있다. 그러나 한옥의 전통적인 특성과 이미지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반대로 개화기 한옥은 당시의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 현재 경제수준과 건축비를 고려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현대한옥에 비하여 전통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1) 개화기부터의 한옥평면 변화는 채로 분화되는 구성보다는 단독주택형이 되며, 현관, 입식주방과 수세식, 개방공간의 실내화는 단독주택 그리고 현대한옥과 맥락을 같이 한다.

2) 개화기 한옥은 전통한옥을 기반으로 하되 텃간 등의 동선 존을 활용한 실의 부가적인 구성으로서 현대한옥에서 단위공간이 커지는 것과는 그 특성이 분명한 전통적인 공간특성이 강하다.

3) 현대한옥의 생활공간은 단위공간의 크기 확대와 거실공간이 중심인데, 개화기의 한옥은 실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텃간 등의 실의 구성으로 연속되는 공간구성으로 목조가구조의 특징이 강하다.

4) 경제소득의 급격한 성장기에는 한옥이 단절되고 아파트와 주택생활에 근거하여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이 발생하는데, 현대한옥은 생활의 기능성과 전통한옥의 공간성과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대한옥은 전통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적 생활욕구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건축수법을 접목하는 선택의 문제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그동안 성장한 거주자의 생활규모나 내용을 담기 어려워 문제가 되고, 현대생활의 생활규모 다양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현대적 접근을 하게 되면, 한옥의 공간특성과 전통적

인 이미지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통한옥, 개화기 한옥, 그리고 현대한옥의 변화과정에 대한 비교 고찰은 한옥의 정체성에 대한 시대성, 거주자의 생활양식,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보여주는 시대적 특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REFERENCES

1. 김정곤(1983). 서울시내개량한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2. 송인호 (2006). 한옥의 개념정의와 개념정립,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3. 신영훈 (1996). 한국의 살림집. 서울: 열화당.
4. 윤장섭 (2001). 한국건축사. 서울: 동명사.
5. 임창복 (2011).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서울: 돌베개.
6.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 (2008). 한국주거의 공간사. 서울: 돌베개.
7.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 (2009). 한국주거의 사회사. 서울: 돌베개.
8. 전라남도 (2007). 전라남도 한옥표준도면
9. 전라북도 (2004. 4).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pp 426-427. 전주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0. 정민자(2009). 아름다기의 한옥을 짓는 이야기. 서울: 중앙M&B.
11. 조전환(2008).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한옥의 구성요소. 서울: 주택문화사.
12. 홍승재(2005). 전북지역 근대한옥의 정통성과 근대성. 한국건축역사연구, 14(4), 242-253.
13. Jeon, B. & Kwon, Y. (2008). A Diachronic Study of the Archetypal Spatial Elements in the Korean House Pl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4(7), 181-193.
14. Kim, B. (2011. Spring). Hanok - New Horizon of Korean House Form.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M*, 3, 24-32.
15. Lee, H. (1997).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in Modernization Period (1876-1945) in Kyungbuk Province: Mainly about the Patterns of Site Plan and Plan Layout.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6(3), 89-107.
16. Lee, J., Kim, D., & Ha, M. (2010). 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Factors of Korean Style Apartm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0(2), 231-235.
17. Lee, M. & Kim, T. (2008). A Study on the Alteration and Extens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s in Cheongju City located on the Central Inland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2), 83-92.
18. Lee, S. (2009).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wo Story Modern Hanok.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Pusan, Pusan.
19. Lee, W.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Hanok design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Interior Design*, 18(3), 20-28.
20. Min, S. & Kim, T. (2011). Sustainable Elements in Transformation of Dwelling Space of Urban Traditional Houses in Cheongju Cit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 Housing Association*, 22(5), 71-80.
21. Nam, H.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Floor Plan in Jeonju Hanok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 139-148.
 22. Park, S. & Park, C. (2010).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Restructuring Hanok by the Rest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Interior Design*, 19(1), 16-27.
 23. Park, Y., Shon, S., & Kim, K. (1991). A Field Survey on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Korean Customary Houses, Related with a Mode of Living (in case of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5), 27-36.
 24. Shon, S., Ha, J., Yang, W., & Yang, Y. (1996). A Study on the Plan-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in Cheonju.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7), 29-36.
 25. Shon, S. & Kim, M. (2012). A Study on the Space Trends of Modern Hanok in Countryside Areas -Focused on Suncheon & Damyang Area-. *Proceeding Spring of Annual Conference of KHA 2012*, 24(1), 183-188.
 26. Shon, S. (2011). A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of Unit Plan and Cluster Housing, Modern Hanok.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4), 121-132.
 27. Song, I. (1988). A Study on the Plan 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1), 61-68.
 28. Yoon, J. (2011. Spring). The Evolution of Hanok: Deployment & Variation of Hanok Frame.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M*, 3, 33-47.
-
- 접수일(2013. 1. 14)
수정일(1차: 2013. 2. 23, 2차: 2013. 3. 8)
게재확정일자(2013. 3. 13)